함평 나비축제 손님맞이 채비 분주

29일~5월8일 함평읍내··· '함평나비! 희망의 날개를 펴다' 주제 22만 마리 나비·봄꽃 생태체험·관광·자동차극장 등 '오감 만족'

함평군이 '함평나비! 희망의 날개를 펴다'를 주 제로 3년 만에 재개하는 제24회 함평 나비대축제 개막을 앞두고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함평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봄축제인 제24회 함평 나비대축제가 오는 29일부터 5월8일까지 열흘간 함평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됐던 함평군 대표 축제 인 나비대축제가 열리는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 이다.

나비대축제에서는 샤피니아 등 30여 종의 다채 로운 꽃 50만본과 23종 22만 마리의 나비를 한자리 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 까지 마련해 관람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전망이

엑스포공원 중앙광장 일원에는 나비날리기 체험, 나비놀이터, 나비터널, 나비곤충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잔디광장에는 전통놀이존, 에어슬라이드, 볼풀 등 20여 개 체험부스가 모인 나비체

허조은 우여하다

꽃과 나비로 가득 찬 축제장은 밤이 되면 아름다 운 야간경관 조명으로 눈부시게 빛난다. 엑스포공 원 일원에 꽃과 함께 장식된 야간경관 조명이 더해 져, 형형색색의 빛으로 수놓인 색다른 모습의 엑스 포공원을 만나볼 수 있다.

축제 기간 매일 오후 8시부터 밤9시까지 나비 모양 외벽에 상연하는 미디어파사드는 화려한 야간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평나비의 숨은 이야기'를 주제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관람객에게 7080 향수를 불러일으킬 'EDM 나이트', '추억의 GOGO파티' 행사와 어린이들을 위한 'EDM 키즈' 프로그램도 상시 열린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 로그램도 마련했다.

나비·황소주차장 일원에서 농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하며, 읍 시가지와 축제장을 연계한 모바일 스 탬프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축제장 일대와 함평읍 시가지의 이동을 돕기 위

해 투어기차를 배치하며, 5월5일과 7일에는 대동 면 함평군문화체육센터에서 행사장까지 1일 4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1층에 최근 개장한 VR (가상현실) 체험장도 관심을 끈다. 이곳에선 롤러 코스터, 해저탐험, 패러글라이딩 등 VR 체험 기구 12종과 스크린사격, 스크린축구 등을 AR(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월요일 정기휴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저녁시간 이후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함평 자동차극장도 행사장과 인접해 있어, 축제기 간 중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은 지난해 1월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에 자동차극장을 개장 해 2개 상영관을 운영 중이다. 신작 영화를 매주 개 봉하며, 비대면 문화 명소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 다.

이병용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올해 봄 3년 만에 손님맞이에 나서는 제24회 함평 나비대축제에 많 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일상으로 회복이 성큼 다가온 지금, 함평에 오셔서 아름다운 봄날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인파 '북적'

장흥군 "거리두기 해제 후 방문객 2배 늘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풀리자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를 찾는 봄나들이 인파가 늘고 있다.

장흥군은 주말 하루 평균 500여명을 기록하던 우드랜드 방문객 수가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주말 인 24일 1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한결 가벼워진 옷 차림으로 봄 날씨를 즐기며 편백숲에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라 군에서도 지역 대표 산림휴양 관광 지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볼거리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산책로에는 맥문동, 꽃무릇 등 초화류 14만본 을 식재했으며 말레길은 오엔스텐 작업과 데크보 완을 마치고 생태건축체험장도 쾌적하고 안전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했다.

생태건축체험장 21실은 우드랜드 홈페이지 (www.jhwoodland.co.kr)를 통해 시설별 수용인원에 따라 사전예약 후 숙박할 수 있다.

또 편백소금집도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용객 편 의를 위해 매표소에서 소금집까지 셔틀 차량을 운행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관 조성을 통해 우드랜드를 더욱 화사하게 가꿔 나갈 것"이라며 "우드랜드를 방문하는 가족과 연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 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 청년농업인, 스마트 농업 날개 달다

농업용 드론 교육생 전원 자격증 취득

화순군이 운영한 농업용 드론 교육 과정 교육생 전원이 초경 량 비행 장치 조종자 1종 자격 증을 취득했다.

화순군은 최근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춘곡무인교육 원에서 진행된 농업용 드론 교 육이 실기 시험을 끝으로 종강 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스마트 농업 확대에 발맞춘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청년농업인 5명을 선발, 6주간 드론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항공 법규·비행 운영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모의비행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생 만족 도 제고와 자격증 취득에 큰 도움이 됐다.

농번기 병해충 방제·종자 파종 등 드론의 다양 한 활용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가 생산



화순군 농업드론교육생들이 최근 종강 수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이 확대되는 만큼, 교육생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청년농업인이 중추적인 역할을할 수 있게 스마트 농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성군 찾아가는 한글교실 개강

장성군이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개강한다. 〈사진〉

25일 시작한 올해 교육에는 19개 마을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여한다. 회당 2시간씩 일주일에두 차례 수업한다. 총 64회 진행한다.

장성군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배움의 기회 를 놓친 지역민과 결혼이주여성 등 성인을 대상 으로 한글교실을 연다.

문해교사가 마을을 찾아가며 읽고 쓰는 수업을 한다.

금융·교통·건강 등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교육,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예방 교육을 병행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백신 3차 접종



을 마친 주민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평소 한글 교육이 필요했던 주민에게 도움 됐으면 한다"며 "장성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 장미 선물하세요

군, 내달 5일까지 온라인 화훼전 10송이 1만2900원 택배비 포함

강진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오는 5월 5일까지 '강진 청자골 장미 온라인 화훼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우체국쇼핑(www.epost.go.kr)에서 진행되며, 장미 10송이(1단)을 택배비 포함 1만2900원에 판매한다. 총 수량은 9만송이 (9000단)한정으로 판매물량 소진 시 조기마감 될수 있다.

청자골 강진 장미는 단일규격으로 박스 포장 후 배송과정에서 흔들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꽃대와 박스 하단 부분을 케이블타이로 고정한 상태로 배송된다. 또, 장미의 관상기간을 늘려줄 절화수명 연장제와 장미손질 및 활용법 안내 리플렛도 함께 동봉 발송한다.

한편, 강진군은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 농특산물 비대면 유통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조우철 강진군 땅심화훼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온라인 판매를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청자골 장미의 아름다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원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지난해 진행한 담양군의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모습.

〈담양군 제공〉

담양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

92개 마을, 환경 정비·경관 개선

담양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공동체 활성화, 주 민화합을 위해 역점 시책사업이 '청정전남 으뜸마 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주도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담양군은 지난해 1년 차 46개 마을을 시작으로 올해 46개 마을을 추가, 총 92개 마을을 으뜸마을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으뜸마을로 선정된 92개 마을은 3년 간 매년 300만 원을 지원받아 소공원·주민쉼터 조성, 마을 쓰레기장 정비 등 경관 개선과 환경 정비 사업을 통 해 생태도시 담양을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최근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개정을 계기로 마을자치회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과 병행해 주민자치의 뿌리인 마을자치 활성화와 주민화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을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